



趣味韩国语系列丛书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 문화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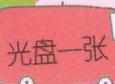
趣味

韩 语 文 化 语

(韩)裴圭范 周玉波 (韩)徐祯爱 编著



随书赠送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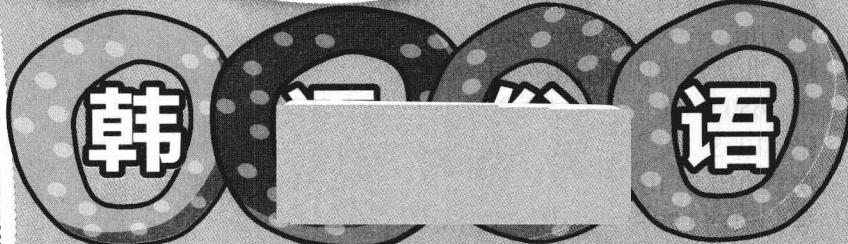
趣味韩国语系列丛书

한국어로 배우는 문화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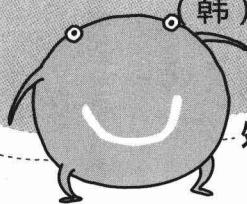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 문화 300



趣味 韓語



(韩)裴圭范 周玉波 (韩)徐祯爱 编著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北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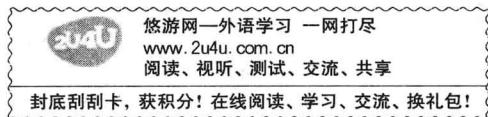
趣味韩语俗语 / (韩) 裴圭范, 周玉波, (韩) 徐祯爱编著. — 北京 :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2010.9

(趣味韩国语系列丛书)

ISBN 978 - 7 - 5135 - 0210 - 8

I . ①趣… II . ①裴… ②周… ③徐… III . ①朝鲜语—俗语
IV . ①H553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10) 第 193917 号



出版人：于春迟

责任编辑：尚明明

封面设计：孙莉明

版式设计：韩晓梦

出版发行：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社址：北京市西三环北路 19 号 (100089)

网址：<http://www.fltrp.com>

印刷：北京铭传印刷有限公司

开本：650×980 1/16

印张：19.5

版次：2010 年 10 月第 1 版 2010 年 10 月第 1 次印刷

书号：ISBN 978 - 7 - 5135 - 0210 - 8

定价：39.90 元 (附赠一张 MP3 光盘)

* * *

购书咨询：(010)88819929 电子邮箱：club@fltrp.com

如有印刷、装订质量问题, 请与出版社联系

联系电话：(010)61207896 电子邮箱：zhijian@fltrp.com

制售盗版必究 举报查实奖励

版权保护办公室举报电话：(010)88817519

物料号：202100001

前言

俗语是一种格言警句，它流传于普通民众之中，具有极强的教育性和讽刺性。俗语来源于生活，它言简意赅，在广为口传的过程中，以一种活泼风趣、表现力强的方式重新融入人们的生活。在这个过程中，语言与生活发生着化学反应，在不断的交互作用和反复提升的过程中，两者的范围得以持续扩大。而且，由于俗语是历经漫长的岁月、在人们的生活中自然而然形成的，因此我们可以说它经受住了历史的检验，具有顽强的生命力。在这种检验的过程中，一个民族所固有的思想和文化被作为一种尺度来衡量，只有经历过这种检验的俗语才能够得以生存并流传下来。从这个意义上来看，语言还可以被称为是一种活着的有机体。即语言为了自身的生存，随着时间的流逝，在社会中不断地改变着自身的面貌。而越是能够准确契合普通民众表达意图的俗语，其使用频度也就会越高，这一点是不言自明的。这也正是俗语的类型和表达方式之所以在现代仍然持续发展变化的原因。

本书的主要编写目的是，让读者通过俗语来理解韩国语中所反映的韩国文化。为此，我们制定了以下几条原则：

第一，以中级以上的韩国语学习者为对象。

第二，本书既适合作为课堂教材使用，也适合作为自学教材使用。为此，我们作了两项安排。首先，我们精心设计了丰富多样的使用韩国俗语的对话场景，使读者能够在实际对话中理解相应的俗语。其次，我们致力于更好地体现俗语的特性，即比喻性和教育性、文化因素以及意义转移等。为此，在对俗语的涵义进行解释说明的部分，除了词典上的释义之外，我们还附加了丰富且细致的讲义式说明。尤为值得一提的是，该部分还包括与俗语的来源和内容有关连的文化背景。通过这些努力，我们提供了生动有趣的文化资料，它能够刺激学习者对于知识的好奇心；同时也创造了一个契机，有助于学习者在学习俗语的基础上，更进一步地对韩国文化本身进行饶有兴趣的探究。

第三，由于本书的读者对象是学习韩国语的中国人，因此我们在中文翻译方面倾注了大量的心血。实际上，中韩两种语言的差异，乃至两种文化上的差异，会对读者理解相关俗语造成一定的障碍，而克服这种障碍的最佳途径就是帮助读者寻找并提供一种最圆满、最贴切的中文译文。

第四，针对部分俗语，我们同时列出了与其主题相关的近义俗语，目的在于提高学习效率。

第五，在俗语目录的编排上，我们采用了韩文的字母顺序作为排序依据。尽管将俗语按照意义、主题、素材来进行分类也不失为一种好办法，但是在实际的内容分类过程中，由于受到编者的随意性和某些固定释义的影响，不可避免地要产生一些问题。因此，我们选择了词典式的排序方式，以求稳妥。另外，本书共收录俗语词条 300 个，这是迄今为止国内出版的同类图书中的最大数目。同时，我们认为作为一本特殊领域的外语词典，这 300 个词条可以称得上是绰绰有余了。

第六，本书中介绍的俗语的基本形式和基本意义，以韩国国立国语研究院发行的《标准国语大辞典》作为依据。

本书与《趣味韩语惯用语》为同一系列的姊妹书。一般来讲，在诠释韩国文化的时候，我们可以选择多种方式。但是，我们认为，通过语言（如俗语与惯用语）来展现文化的方法比较直观，且具备现场感，因而是一种不可多得的好方法。也正是在这个意义上，我们有个小小的心愿，那就是这两本书出版之后，通过了解韩国的俗语与惯用语，能够使中国国内对于韩国文化的理解得到进一步的拓展和深入。

最后，我们谨向鼎力支持国内韩国语教育事业发展的外研社综合语种出版分社的孙艳杰副主任及其他编辑、工作人员致以深深的谢意。同时，对外经济贸易大学的华菲、刘婕、朱文静三位研究生为本书的初稿翻译提供了诸多帮助，在此一并表示衷心的感谢。

编者 于慧泉斋

2009 年仲冬

目録

七

1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 한다	25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2	가난한 집 제삿날 돌아오듯	26	개구리 낯짝에 물 봇기
3	가는 날이 장날이다	27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
4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28	개꼬리 삼 년 두어도 황모 못 된다
5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29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는다
6	가랑잎이 솔잎더러 버스락거린다고 한다	30	개도 닷새가 되면 주인을 안다
7	가뭄 끝은 있어도 장마 끝은 없다	31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8	가뭄에 콩 나듯	32	개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좋다
9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덤빈다	33	개발에 주석편자
10	가재는 게 편이다	34	개살구도 맛 들일 탓
11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35	개장수도 올가미가 있어야 한다
12	가까운 남이 먼 친척보다 낫다	36	개천에서 용 난다
13	간에 불었다 쓸개에 불었다	37	거지 옷 해 입힌 셈
14	갈수록 태산이다	38	걱정도 팔자
15	감기 고뿔도 남을 안 준다	39	건너산 틀 쳐다보듯
16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 기를 기다린다	40	걸기도 전에 뛰려고 한다
17	갓 쓰고 자전거 타는 격	41	검둥개 멱 감기듯
18	강물도 쓰면 준다	42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구제 말라
19	같은 값이면 다흥치마	43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20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44	걸 다르고 속 다르다
21	개 못된 것은 들에 가서 짖는다	45	계으른 선비 책장 넘기기
22	개 보름 쇠듯 한다	46	계란에도 빼가 있다
23	개 팔자가 상팔자다	47	고기는 씹어야 맛이요, 말은 해 야 맛이다
24	개가 웃을 일이다	48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
		49	고기도 저 놀던 물이 좋다

50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81	귀가 보배다
51	고생 끝에 낙이 온다	82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52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고 한다	83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53	고양이 목에 빙울 달기	84	그물에 든 고기
54	고양이 세수하듯	85	금강산도 식후경
55	고양이 쥐 생각한다	86	금이야 옥이야
56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다	87	기와 한 장 아끼려다 대들보 썩힌다
57	고운 사람 미운 데 없고, 미운 사람 고운 데 없다	88	긴 병에 효자 없다
58	곧은 나무는 쉬 꺾인다	89	길고 짧은 것은 대어 보아야 안다
59	곳간에서 인심난다	90	김 안 나는 숭늉이 더 뜨겁다
60	공든 탑이 무너지라	91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61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92	꼬리가 길면 잡힌다
62	공중을 쏘이도 알파녀를 맞힌다	93	꿀 먹은 벙어리
63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	94	꿈보다 해몽이 좋다
64	곶감 빼먹듯	95	꿩 구워 먹은 소식
65	과부 사정은 훌아비가 안다	96	꿩 대신 닭
66	관가의 조세는 범보다도 더 무섭다	97	꿩 먹고 알 먹고
67	구관이 명관이다		
68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		
69	구렁이 담 넘어가듯	98	나무에 오르라 하고 혼드는 격
70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안 낸다	99	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
71	구멍은 깎을수록 커진다	100	날면 기는 것이 능하지 못하다
72	구멍을 보아 말뚝 깎는다	101	남의 땅이 더 커 보인다
73	구슬이 서 말이라도 궤어야 보배	102	남의 말 하기는 식은 죽 먹기
74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뻔다	103	남의 잔치에 감 놔라 배 놔라 한다
75	굶기를 부자집 밤 먹듯 한다	104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76	굶어 보아야 세상을 안다	105	낯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77	굶어 죽기는 정승하기보다 어렵다	106	내 배가 부르니 종의 배고픔을 모른다
78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107	내 코가 석 자
79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80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L

108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138	뒤에서 호박씨 까다
109	냉수 먹고 속 차려라	139	등잔 밑이 어둡다
110	냉수 먹고 이 쑤시기	140	땅 짚고 헤엄치기
111	놓친 고기가 더 커 보인다	141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112	누울 자리 봐 가며 발 뻗어라	142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113	누워서 떡 먹기	143	김삿국부터 마신다
114	누워서 침 뱉기	144	떼어 놓은 당상
115	누이 좋고 매부 좋고	145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 란다
116	눈 가리고 아웅한다	146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117	눈에 콩깍지가 씌다	147	뛰어야 부처님 손바닥
118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		



119	다 된 밥에 재 뿌리기	147	마른 하늘에 날벼락
120	다람쥐 청바퀴 돌듯	148	말 속에 뼈가 있다
121	단 맛 쓴 맛 다 보았다	149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
122	달걀로 바위 치기	150	말이 고마우면 비지 사러 갔다
123	달도 차면 기운다	151	두부 사 온다
124	달리는 말에 채찍질	152	말이 씨가 되다
125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153	망건 쓰다 장 파한다
126	닭 소 보듯, 소 닭 보듯	154	맞은 놈은 펴고 자고 때린 놈은 오그리고 잔다
127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155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
128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한다	156	모기 보고 칼 뺀다
129	대추나무에 연 길리듯	157	모난 돌이 정 맞는다
130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	158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131	도둑이 제 발 저리다	159	모르면 약 아는 게 병
132	도토리 키 재기	160	목구멍이 포도청
133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161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134	동냥은 안 주고 쪽박만 깬다	162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
135	동에 번쩍 서에 번쩍	163	무소식이 회소식
136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164	무자식이 상팔자
137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 는다

165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188	사람 나고 돈 냈지 돈 나고 사람 냈나
166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189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167	미운 정 고운 정		
168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ㅂ		
169	바늘 가는 데 실 간다	190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170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191	새 발의 피
171	바늘구멍에 황소바람 들어온다	192	새끼 많이 둔 소 길마 벗을 날 없다
172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다	193	새벽 달 보자고 초저녁부터 기다린다
173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	194	서당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174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195	서울 가서 김서방 찾기
175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196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176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 만 못하다	197	설마가 사람 잡는다
177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198	세 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
178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	199	소귀에 경 읽기
179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200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180	벼룩의 간 빼먹기	201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181	병 주고 약 준다	202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182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203	손톱 밑에 가시 드는 줄은 알아도 염통 안이 곪는 것은 모른다
183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배기	204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
184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	205	쇠뿔도 단김에 빼랬다
185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206	수박 걸壑기
186	빛 좋은 개살구	207	수염이 열 자라도 먹어야 양반
	ㅅ		
187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213	술과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
		214	송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
			숯이 검정 나무란다
		211	시작이 반이다
		212	신선놀음에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른다
			십 년 공부 도로 아미타불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215 쌈 게 비지떡



- 216 아 다르고 어 다르다
217 아는 길도 물어 가랬다
218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219 아흔아홉 가진 사람이 하나
 가진 사람보고 백 개 채워 달라
 한다
220 앞에서 꼬리치는 개가 뒤에서
 발꿈치 문다
221 약방에 감초
222 양지가 음지 되고 음지가 양지
 된다
223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224 언 발에 오줌 누기
225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226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227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228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짧밥에만
 마음이 있다
229 오뉴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230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231 옥의 티
232 웃이 날개다
233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234 우는 아이 젖 준다
235 우물 안 개구리
236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
237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 238 울며 겨자 먹기
239 웃는 낮에 침 못뱉는다
240 원님 덕에 나팔 분다
241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242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243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
244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
245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 246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솔뚜껑 보
 고 놀란다
247 자랄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248 자식 곁 낳지 속은 못 낳는다
249 작은 고추가 더 맵다
250 잘되면 제 탓 못되면 조상 탓
251 저 먹자니 쉽고 남 주자니 아깝다
252 절에 가면 중노릇하고 싶다
253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254 제 눈의 안경
255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훑긴다
256 죄지은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
257 주머니 털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
258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259 쥐구멍에도 별 들 날이 있다
260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261 지성이면 감천
262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서도
 샌다
263 짚신도 제짝이 있다

(天)

- 264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265 참새 무리가 어찌 대봉의 뜻을
알라
266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라
267 처삼촌 외에 벌초하듯
268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
269 첫술에 배 부르랴
270 친구 따라 강남 간다

- 281 하늘의 별 따기
282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283 하던 짓도 망석 깔아 놓으면 안
한다
284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285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
286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287 한 번 실수는 병가의 상사
288 한 손뼉이 울지 못한다
289 한 술 밥에 배 부르라
290 한 입으로 두 말 하기
291 형만한 아우 없다
292 호랑이 골에 토끼가 왕 노릇 한다
293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를
잡는다
294 호랑이 꼬리를 잡은 셈
295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296 호랑이에게 물려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297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298 혹 떠러 갔다 혹 붙여 온다
299 효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 풀이
난다
300 흥정은 불이고 싸움은 말리겠다

(地)

- 271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272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하여도 곧
이듣지 않는다
273 티끌 모아 태산

- 291 호랑이 골에 토끼가 왕 노릇 한다
292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를
잡는다
293 호랑이 꼬리를 잡은 셈
294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295 호랑이에게 물려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296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297 혹 떠러 갔다 혹 붙여 온다
298 효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 풀이
난다
299 흥정은 불이고 싸움은 말리겠다

(人)

- 274 팔은 안으로 굽는다
275 평양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
276 평계 없는 무덤 없다

- 297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298 혹 떠러 갔다 혹 붙여 온다
299 효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 풀이
난다
300 흥정은 불이고 싸움은 말리겠다

(心)

- 277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
278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279 하늘 보고 침뱉기
280 하늘은 스스로 돋는 자를 돋는다

- 301 作者简介

附录



1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 한다

皇帝老子也救不了穷 / 救济贫穷，国家也无奈

001

近义俗语 / 俗语



가난 구제는 임금님도 어렵다.

가난은 나라님도 못 당한다.

释义



这句俗语是指贴补他人贫困的生活是无止境的，别说个人，就是靠国家的力量也无法全部救助。

百姓贫困的生活需要通过个人的努力来改变，这才是硬道理。古今中外，没有任何一个国家或政府可以让所有的百姓都能生活富裕。所以百姓中才流传起“皇帝老子也救不了穷”这句自救性质的俗语。

情景会话

강강: 영철이네 큰 아들이 어제 넘어져 팔을 부러뜨렸대요.

미미: 아휴, 어찌나. 그 집은 너무 가난해서 병원비도 제대로 없을 텐데……

강강: 그러게 말이에요. 없는 집에 자꾸 돈 들어갈 일이 생기니, 영철이 엄마도 힘들겠어요.

미미: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 한다’는데, 어찌겠어요?

强强：永哲家的大儿子昨天把胳膊摔断了。

美美：哎呦，这怎么办？他家那么穷，恐怕连住院的钱也没有吧……

强强：谁说不是呢？家里那么穷，还总出花钱的事儿，永哲的妈妈可真够难的了。

美美：都说“皇帝老子也救不了穷”，能怎么办啊？



2

가난한 집 제삿날 돌아오듯

屋漏偏逢连夜雨，船迟又遇打头风/
怕什么来什么/越穷越见鬼，越冷越刮风

002

近义俗语 / 俗语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释义



这句俗语是指本来已经穷得叮当响的家庭又偏偏经常赶上祭祀，而为了办好祭祀，家里经济更是难上加难。

在韩国，祭祀具有非同寻常的意义，是追悼祖先、加强家人和睦团结的重要契机。但是准备和举行祭祀会带来精神上和物质上的双重负担。如果经济上再不宽裕，问题会更加严重。对于那些连吃饱穿暖都有问题的家庭来说，接二连三的祭祀只能让人忧心忡忡。

因此，当经常遇到麻烦事儿时，会形象地用到这句俗语。



情景会话



미미: 다음 주 금요일이 은행 대출 이자 내는 날인 거 잘 아시죠?

강강: 응? 별씨 그렇게 되었나?

미미: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공과금이랑 카드값 내는 날이고요.

강강: ‘가난한 집 제삿날 돌아오듯’한다더니 끝이 없구먼.

美美：你知道下星期五要还银行贷款的利息吧？

强强：啊？这么快就到了？

美美：还有下下星期要交水电煤气费，信用卡要还款。

强强：都说“屋漏偏逢连夜雨”，果然没个头啊！

3 가는 날이 장날이다
事不凑巧/无巧不成书

003

释义

出去办事，正好赶上集市。

“集”是每五天举办的自由市场。在通讯和交通不发达的时代，集市上会进行各种各样的交易和买卖。这句俗语原意是指没有任何想法到城里一看，正好赶上集市，既看了不少热闹，又买到了东西，含有肯定的意思。但是随着时代的变迁，这句话中渐渐包含了轻微的否定意义。

现在，这句俗语一般用于因为一些不凑巧的理由，原本已经计划好的事情没能办成的情况。

情景会话

강강: 칭칭아, 너 학교 앞에 생긴 샤브샤브집 가 봤니?

칭칭: 아, 서문 앞 빌딩에 생긴 식당 말이지?

강강: 응, 그래. 어제 가서 먹어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던걸.

칭칭: 그래? 사실은 나도 그제 갔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손님이 너무 많아 그냥 왔어.

强强：青青，你去过学校前面那家新开的火锅店吗？

青青：哦，你是说西门前面那栋大楼里新开的餐厅吗？

强强：嗯，对啊。我昨天去吃了，比想象的要好。

青青：是吗？其实我前天也去了，但事不凑巧，客人太多就回来了。



4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你敬人一尺，人敬你一丈/礼尚往来

004

释义



说话是为了给别人听。所以说和听是相互交流的两个重要活动。如果一方心存善意地说好听的话，那么对方当然也会美言几句。但相反，如果说的话不好听，对方的回话也绝对不会顺耳。这就是“种瓜得瓜，种豆得豆”的道理。

所以该俗语的意思是，只有自己给对方说好听的、做好看的，对方才能反过来对自己好。



情景会话

강강: 어제 오후에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났었어요.

청청: 어머, 그래요? 어디 다치신 곳은 없어요?

강강: 다행히 가벼운 사고라 차만 조금 긁혔어요. 그런데 상대방 운전수랑 다투느라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청청: 아니, 왜요?

강강: 차에서 내리더니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곰다’는데, 어떻게 제가 좋은 말로 대할 수가 있었겠어요?

强强：昨天下午和别人撞车了。

青青：天哪！是吗？你没伤到哪儿吧？

强强：万幸只是个小事故，就是车刮蹭了一点儿。但是和对方司机吵了一架，心情很不好。

青青：啊，为什么？

强强：那人从车上下来就破口大骂。都说“你敬人一尺，人敬你一丈”，我怎么能对他说好听的？

5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小雨湿衣裳/毛毛细雨湿衣裳，小事不防上大当/
千里之堤溃于蚁穴/积少成多/聚沙成塔

005

释义



毛毛雨因为下得细，所以也叫雾雨。由于雨丝太细，甚至都感觉不出来下雨。但是，即便是毛毛雨，淋得时间长了，也会感到衣服被淋得湿乎乎的。这条俗语警示人们，某些事物虽然在刚开始时强度弱得几乎无法感知，但积少成多，终有一天将会以超大的强度爆发出来。

所以，这句俗语比喻无论多小的事，如果循环往复，最后也会发展到让人无法忽视的程度。

情景会话

강강: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늘 피곤해요.

칭칭: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요.

강강: 정말요? 일이 끝나야 쉬든지 할 텐데 걱정이에요.

칭칭: 가랑비에 옷 젖듯이 피곤도 그때그때 풀지 못하면 나중엔 쌓여서 큰 병이 되니 조심하세요.

强强：最近事情太多，总感觉累。

青青：怪不得脸色看起来不好呢。

强强：是吗？得把事情干完才能考虑休息，真郁闷。

青青：“千里之堤溃于蚁穴”，如果疲劳得不到及时休息，日后会积劳成疾，你要多注意啊。



6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老鸦笑猪黑，自丑不觉得/五十步笑百步

006

近义俗语/俗语



겨 묻은 개가 뚱 묻은 개를 나무란다.

释义



这句俗语说的是自身更加悉悉索索的干树叶反而骂松针悉悉索索。

有时，明明双方都有缺点，但缺点稍少的人却笑话缺点多的人。该俗语就是用来指责笑话别人的人，和“五十步笑百步”有异曲同工之妙。“糠（겨）”是从稻子、大麦等谷物脱粒之后剥离下的皮儿。虽然比大粪强点，但糠同样很脏。

因此，该俗语多用来比喻某些人不注意自己的缺点，反而只嘲笑别人的缺点。



情景会话



미미: 어? 강강 씨, 얼굴에 그게 뭐예요? 잘 좀 씻고 다니세요.

강강: 뭐가요? 어? 이게 뭐지?

미미: 청소하다 더러워진 손으로 얼굴을 문질러서 그렇게 되었나 봐요.

강강: 그런데 미미 씨, 미미 씨 얼굴에도 검댕이가 묻어 있네요. 하하하.

미미: 어머, 정말 그러네요.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 다더니 아이 부끄러워라.

美美：咦？强强，你脸上那是什么呀？拜托好好洗洗脸再出门。

强强：怎么了？啊？这是什么呀？

美美：打扫卫生时用脏手擦脸弄上的吧。

强强：但是，美美小姐，你脸上也沾上灰了哦，哈哈。

美美：哎哟，真是这样。俗话说“五十步笑百步”，真丢人。